



기온 뚝, 냥냥이도 추워요... 보온은 필수



고양이·특수동물 슬기로운 겨울 나기

고양이 저온성·호흡기 질환 위험 높아
체온 낮아지면 신진대사·면역력 떨어져
실내 습도 높게 유지하며 짧게 자주 환기
특수동물 난방 중요... 난방장치 점검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강'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벌써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겨울은 낮은 기온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게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와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에게도 겨울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은 계절이다.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확인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도록 하자.

겨울은 낮은 기온으로 인해 저온성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의 발병위험이 높다.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에게도 추위는 큰 위협요소이다. 고양이의 체온은 사람보다 2-3도 가량 높아 추위를 더 쉽게 느끼며, 체온을 더 빠르게 뺏길 수 있다. 또한 체온이 낮아지면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감소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추운 겨울철에는 체온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용 등을 미루는 것이 좋으며, 목욕을 한 후에는 털을 충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고양이가 옷을 입고 지내는 것을 익숙해하고 큰 불편이 없다면, 옷을 입혀주어 보온성을 높여주는 것도 좋다.

고양이를 위한 난방 장치를 따로 마련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난로나 전열기구 등은 화재의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외부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텐트나 상자 같은 공간에 담요를 깔고 따뜻한 핫팩 등을 수건에 감싸 같이 넣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난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단 핫팩 등 사용 시에는 직접 접촉에 의한 저온화상 등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에 다발하는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 가습기 등을 사용해 습도를 높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건조한 실내 공기는 호흡기계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려 외부 병원체의 침입을 더욱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내는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만, 환기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해 외부의 찬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주어야 한다.

고양이 이외에도 도마뱀, 거북과 같은 파충류, 앵무새와 같은 조류 등의 특수동물들에게도 겨울철 난방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들 대부분은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살던 동물이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등 따뜻한 지역에 서식하던 동물들이므로 겨울철 체온 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평소 사용하던 난방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고 사육장 내에는 온도계를 설치해 적정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간혹 겨울에 난방장치가 고장나면 사육장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 난방장치를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하는 며칠 동안에도 건강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여분의 난방장치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윤기
제주동물병원장

영화觀

파도가 지나간 자리



영화 '도망친 여자'의 한 장면.

영화 '도망친 여자'를 보았다. 홍상수 감독의 24번째 장편영화이자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1996년 첫 작품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이후, 홍상수 감독은 매년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며 자신의 세계를 조금씩 넓혀나가고 있다. 마치 텃밭을 일구는 농부의 수확처럼 그의 작품 세계는 닦은 듯 또 다른 결과물들을 해마다 관객들에게 안긴다. 언제나 그렇듯 아무렇지 않게 시작한 그의 산책은 길에서 만난 무수한 풍경과 감정들을 보는 이들에게 전해준다.

살아가는 순간의 질감이 생생

무심하게 스쳐간 것들의 의미는 그것을 다시,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주인공 감희가 겪는 세 번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지나간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도망친 여자'는 스무 고개의 등성을 넘어가며 여러 번 보는 이를 멍치게 만드는 영화다. '우정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언제처럼, 바다 수면 위와 아래로 여러 물결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작품에 대한 설명처럼 영화는 복잡한 이면과 선연한 정면을 조립해 관계의 모양들을 입체적으로 만들어낸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는 영화의 구조는 단순하다. 그런데 그 만남과 대화는 같지만 다르다. 두 번은 계획적이고 한 번은 우연히 이루어진다. 세 차례, 별 것 없게 들리는 대화의 바깥에는 추측과 단정, 의심과 꾸밈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한다. 화면

속 등장 인물은 두 명 뿐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화의 꼬리가 서로를 무는 순간 영화는 흥미로운 긴장감으로 가득해진다. 순간의 일이다. 단출한 차림인데 풍성한 미감을 갖게 만드는 홍상수 영화의 특별한 개성이 '도망친 여자'에도 여전하다.

'도망친 여자'는 또한 여자들의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 속 남자들은 얼굴을 가늠하기 힘들다. 그 남자들은 뒷모습으로 변명하고 뒷모습으로 불만을 이야기한다. 얼굴이 보이는 남자는 여자에 의해 내쫓음을 당한다. 거나한 술자리에서의 분노도 찾아보기 힘들다. 떠들썩하던 유머는 작고 경제하게 변했고 불 같은 분노는 감정 이후의 사과와 수락으로 평온을 찾았다. 현명한 여자를 덕에 홍상수의 세계는 고요해졌다.

'도망친 여자'의 전작인 세 편의 흑백영화 '그 후', '풀잎들' 그리고 '강변호텔'은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작품들이었다. 흑백의 세계 속 요동치는 인물의 감정들은 진하고 무겁고 때로는 신비롭기까지 했다. 반면 '도망친 여자'는 사소한 삶의 금금증들로 가득한 영화다. 살아가는 순간의 질감을 만질 수 있게 만들어졌다. 맛있는 고기와 아기같은 길고양이들, 상대에게 더 잘 어울리는 옷, 사과를 꺾는 솜씨와 인연을 끝내는 패각 같은 생생한 감정들로 충만하다.

세차게 몰아치던 파도가 끝난 자리에는 또 다시 작은 파도들이 밀려온다. 홍상수 감독의 바다는 그렇게 다른 모양으로 관객들을 불러 모은다. 나는 그의 해변에 앉을 때마다 외롭고 기쁘다.

<진명현·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축
CONGRATULATIONS
수 상
대통령표창

임 봉 순
(우도해운(주) 대표)
(성산조선(주) 대표)
(재단법인 임봉순장학재단 이사장)

제5회 금융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豊川任氏忠簡公派濟州道青年會
회장 임수길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신지식인 대상

양 원 중
(보림광고휘장산업 대표)

『2020년 제7회 신지식인 인증서 수여 및 시상식』에서 영예의 신지식인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행정안전부장관표창

홍 귀 강
(본회 부회장)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제주시 고산향우회
회장 고한철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선 임
대한노인회 부회장

강 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님께서 대한노인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임·직원 일동